

치 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시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자비를 실천해 온 소임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후원과 봉사에 솔선수범해 오신 사부대중 여러분과 누구보다도 복지시설을 아끼고 함께 가꾸어 주신 지역주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사회는 급속한 발달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 또한 날로 변화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천구 관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의지와 열정을 잃지 않고 20년 동안 꾸준히 사회복지를 위해 진력해 오신 것은, 모든 이가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향기로운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금천구는 1995년 3월 구로구에서 분리되어 어려운 행정과 재정적 여건을 극복해야 하고 서울 서남권 외곽에 위치해 있어 낙후된 교육환경과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기에 저소득 복지 대상자의 욕구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기관장님과 종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의 20년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비실천의 커다란 성취라 할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직원과 봉사자 및 후원자와 함께 소중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에게 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0주년의 풍성한 결실을 바탕으로 성취와 행복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공덕이 지역사회 모두에게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12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